

무용계열학과 교과과정 비교연구 분석

* 이 한 주, 양 승 연 **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 연세대학교 스포츠교육학 교수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스포츠교육학 박사과정 연구원

논문투고일 : 2022.01.30.

논문심사일 : 2022.02.03.

게재확정일 : 2022.03.11.

Comparative research and analysis of dance department curriculum

Lee, Han-joo · Yonsei University

Yang, Seung-yeon ·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iculum of Korean dance departments using word cloud techniques. Following 15 universities and 17 departments were finally selected by collecting departmen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dmission information portal 'adiga', 428 subjects were visually compared and analyzed. It indicated that the frequency of dance practice-related words was higher than that of theory. Nex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or changing the name of a new department, the boundary between pure arts and practical arts is reflected in the curriculum, with the region at the center. To fit into the cultural era, dance studies should play a role as an independent study in realizing common interests and social values such as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communities.

〈key words〉 dance education, curriculum, word cloud, comparative study

〈주요어〉 무용학과, 교과과정, 워드 클라우드, 비교연구

무용학은 1951년 1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전인교육이란 공통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체육교과 영역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편성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무용학은 체육학의 학문체계와 개념 틀에 기초·발달하여 세부학문 분야 역시 기본개념과 학문구조에 상당 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김지영, 홍애령, 2019:440). 이는 우리나라에서 무용학이 독립된 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체육교과의 한 과목으로 교육되어 왔다는 것이며, 신체활동을 하는 부분으로 인식하여 예술이 아닌 체육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개설 이후, 무용학은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적으로 학과를 신설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이종희, 2020:31). 그러나 “교육정책 변화, 학령인구 감소, 대학 간 경쟁구도 등의 변화로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병행되지 않아 구조개혁의 직격탄을 맞았다”(이지선, 2016:100). 이러한 양적 팽창은 결국 학과의 정체성과 목표, 교육 방향, 교과과정 개발 미진 등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취업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과과정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의 내실화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체육백서』(2019:464-470) 자료에 따르면, “특목고 무용과는 51학과, 재학생 1,513명이 전공으로 삼고 있다. 이어 4년제 대학 무용(학)과는 28학과, 재학생 2,491명이 전문인력으로서 교과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전공자의 성별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용(학)과 남자는 408명, 여자는 1,183명이고, 남자교수는 9명, 여자교수는 55명으로 비례적으로 여성이 많았으며, 우리나라 무용학과는 여성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용은 여성을 위한 예술이라는 오해를 샀고, 2010년부터 무용학과가 폐과 위기에 봉착했다”. 학생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방대학 무용학과는 새로운 응용학문과 통합·변경되어 존폐위기를 타개하고 있다”(이종희, 2020:32).

이와같이 급변하는 대학 교육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할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교과과정이다. “교과과정이란 학문의 체계를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선정하고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라 정하고 있다”(유봉호, 1998:30). Parkhouse, B. L.(1987:95)은 “성공적인 학교 교육의 핵심요소로 인간과

교육, 사회, 학문 등 전문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초를 교과과정으로 보았다”. 이어 홍후조(2009:52)는 “학습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축된 학습영역 또는 단위가 교과과정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무용학과 교과과정은 실기 중심의 과목 편성과 이론 및 실제의 분리된 교육과정 등 학과의 학문성과 전문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진로와 연계하여 무용학과 교과과정을 살펴본 연구(신민혜, 2016; 신민혜, 2017:72)와 개발을 통해 변화를 모색했다(박정선, 2017:1). 특히 대학 간 교과과정을 살펴본 최윤선(2012:260)의 연구는 “이론/실기영역과 학과목을 분류하여 시대적인 흐름과 교육적인 이념”으로 교과과정이 필요한 지식과 사고방식의 기초를 제공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학과의 생존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학과의 차별성, 전문성, 장래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순수예술인 무용학이 신설 학과 또는 학과목 개설을 통해 실용예술로 변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간의 감정을 신체로 표현한다는 기본개념을 놓고 무용계의 변화와 전통을 주장하는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문성과 전문성에 혼란이 불가피했고, 일부 전공자들은 경력단절을 피하기 위해 더부살이를 선택하고 있다”(신주영, 2018; 추나영, 장승현, 2021:452). 이러한 문제해결방안으로 무용학의 교과과정 내용을 보완하여 무용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경적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과명칭의 분석연구는 최근 학과의 전문성과 학문성을 살펴보기 위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반재훈, 김동현, 하중수(2018:830)은 “우리나라 대학의 학과들을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적용하여 대학 내에서 어떠한 학과명이 자주 사용되는지 분석했다”. 이어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학술연구 경향 분석”(김준환, 문형진, 이항, 2021; 문승리, 이원석, 2020)을 위해 분석도구로 활용한 바 있다.

따라서, 학과명칭은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과이념이며, 교육 지표이자 학과운영방침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무용계열학과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문제 1) 무용계열학에 따른 교과과정의 주요어는 무엇인가? 2) 무용계열학에 따른 교과과정에 시각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다.

1. 워드 클라우드

“문화어(Text) 자료를 단어 단위로 나누어 크기 또는 위치로 단어의 빈도를 나타내는 기법인 워드 클라우드는 시각화 기법들 중 대표적인 분석도구로서 문화어처럼 비정형 데이터를 그래프(원 등)의 형태로 시각화한다”(민서희, 2018:190).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의 중앙성에 밀집되거나 글자 크기가 클수록 텍스트 데이터에서 언급된 단어 크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

2. 자료수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소개하고 있는 무용계열학과 홈페이지에 모두 방문하여 학과에서 공개하는 교과과정을 검색·취합했다. 검색기간은 2021년 08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로 설정했으며, 학과의 변경 또는 신설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2018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이에 선별한 연구대상은 15개 대학 중 17개 학과와 428개 전공과목을 수집했다. 다만 경희대학교 무용학부는 유일하게 학부로 편제되어 삼분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단독으로 비교·분석했다.

따라서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통해 유사 학과명을 가진 학과 간의 학과목을 살펴 보았다. <표 1>은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대학의 무용계열학과 현황이다.

표 1. 연구대상 무용계열학과

No	대학	학과	과목	교원
1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30	4
2	충남대학교		16	4
3	세종대학교		51	4
4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27	3
5	숙명여자대학교		18	3
6	강원대학교		42	5
7	중앙대학교	무용전공	26	6
8	성균관대학교		17	3
9	단국대학교		32	4

10	상명대학교	무용예술전공	49	3
11	성신여자대학교		18	5
12	서경대학교		32	1
13	한국체육대학교	공연예술학과	14	4
14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12	4
15	경희대학교	발레전공	17	1
16		한국무용전공	27	2
17		현대무용전공	23	1
전체			428	56
평균			27.88	3.25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통계 프로그램인 R프로그램(<http://www.r-project.org>)을 설치했는데 원활한 자료분석을 위해 R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프로그래밍 중 하나인 Rstudio에서 프로그램을 역시 재설치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절차대로 분석했다.

워드 클라우드 특성상, 단어들을 다루는데 명사를 추출하여 데이터로 다시 변환시켰다. 왜냐하면 입력된 줄기 어휘(stem word)를 형태소로 측정·표현되기 때문이다. 이어 분석된 자료는 wordcount의 수만큼 빈도(frequency)를 확인했다. 검색 빈도는 일부 대학의 경우, 수치상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괄적으로 상위 7순 위까지만 제시했다.

III 연구결과

1. 무용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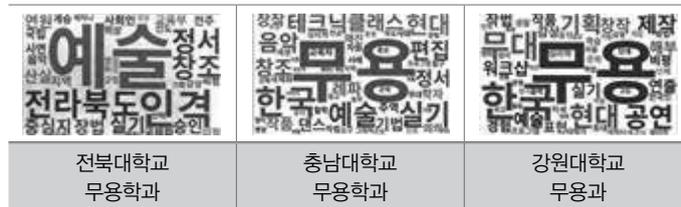
무용계열학과 중 가장 많은 학과명을 갖고 있는 무용학과는 전국 17개 대학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가 1963년 국내 최초로 학과를 신설한 이래로 예술분야의 한 축으로 무용학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가 1984년에 여자대학교 두 번째로 신설되어 무용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대상 학과들의 학과목, 학과목표, 전공교수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 하에 무용학과로 정리·분석했다.



순위	이화여자대학교 키워드	빈도	숙명여자대학교 키워드	빈도
1	무용	23	무용	16
2	움직임	19	동작	14
3	신체	18	발레	13
4	동작	15	자세	9
5	실기	13	풍습	6
6	산조	9	신체	5
7	창작	7	배경	4

그림 1.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와의 클라우드 결과

〈그림 1〉은 우리나라 무용학을 대표하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학과목을 비교한 것이다. 두 학과 ‘무용’, ‘동작’, ‘신체’, ‘자세’ 등 무용수에게 필요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창작’, ‘움직임’, ‘공연’, ‘감성’, ‘음악’, ‘미학’ 등 실기와 실습 위주의 단어 언급이 높았다. 우리의 고유의 멋과 흥이 함께하는 ‘산조’, ‘풍습’, ‘배경’의 단어도 볼 수 있었다. 이에 학문성과 전문성을 유지·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부터 〈그림 5〉은 무용학과(부)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결과이다.



순위	전북대학교 키워드	빈도	충남대학교 키워드	빈도	강원대학교 키워드	빈도
1	예술	24	무용	16	무용	38
2	인격	18	한국	12	한국	22
3	전라북도	13	실기	10	무대	18
4	정서	10	예술	10	현대	16
5	창조	9	현대	7	공연	15
6	실기	9	테크닉	6	제작	9
7	장법	5	클래스	6	기획	8

그림 2.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와의 클라우드 결과

지역거점 대학 중 하나인 전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 무용학과는 ‘예술’, ‘무용’, ‘한국’, ‘현대’, ‘창조’, ‘음악’, ‘레퍼’ 등 학과명에 부합한 단어와 공연에서 필요한 단어 빈도가 높았다. 이어 무대예술과 관련된 ‘공연’, ‘기획’, ‘테크닉’, ‘제작’ 등의 무대 실습과 관련된 단어를 볼 수 있다. 다만 전북대학교 무용학과와 경우, ‘전라북도’, ‘국제화’, ‘교육부’, ‘경영’ 등 학과명과 관련되지 않은 단어 언급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생리학’, ‘심리학’ 등 체육이론을 학과목에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는 무용학에서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체육학을 통해 개설·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학과명이 동일해도 서로 관심사나 연구분야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위	중앙대학교 키워드	빈도	성균관대학교 키워드	빈도
1	무용	22	무용	16
2	발레	19	발레	14
3	예술	15	동작	13
4	재즈	14	실기	10
5	창작	13	예술	10
6	신체	13	움직임	7
7	음악	12	신체	7

그림 3.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와의 클라우드 결과

무용학 전공을 대표하는 대학 중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동일한 대학입학 양상을 띄는 중앙대학교 무용전공과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를 비교·분석했다. 양과 모두 ‘무용’, ‘발레’, ‘신체’, ‘예술’, ‘창작’, ‘음악’ 등 실기 또는 실습과 관련된 단어 언급 빈도가 높았다. 무용학과와 관련된 단어로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유아’, ‘필라테스’, ‘요가’, ‘재즈’ 등 무용전공자로서 졸업 이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직종 중 하나인 프리랜서 직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학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여학생 빈도가 높은 무용학과 차원에서 취업률을 고민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순위	단국대학교 키워드	빈도	세종대학교 키워드	빈도
1	무용	27	무용	33
2	실기	23	움직임	22
3	발레	22	창작	21
4	지도자	15	기교	18
5	워크샵	12	작품	16
6	한국	11	테크닉	13
7	예술	9	예술	8

그림 4. 단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와의 클라우드 결과

〈그림 4〉는 과정명과 전공명칭이 유사한 단국대학교 무용전공과 세종대학교 무용학과의 교과과정을 비교한 결과이다. 두 학과 모두 ‘무용’, ‘창작’, ‘공연’, ‘실기’, ‘레파’ 등 무용학에서 강조하는 단어 빈도가 역시 높았다. 무용에서 볼 수 있는 ‘움직임’, ‘테크닉’ 단어도 볼 수 있었다. 다만 단국대학교 무용전공은 ‘발레’, ‘현대’, ‘발표회’ 등 무용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 언급이 높는데 반해 세종대학교 무용학과는 ‘체육’, ‘커뮤니티’, ‘테크놀로지’ 등 학과명이 유사해도 관심사와 연구분야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용예술학과

2010년 이후, 지역 예술을 대표했던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에서는 기존의 무용학과들이 잇따른 폐과 수순을 밟자 무용학에 대한 고사 위기로 순수예술과 연기·연출이 가미된 실용예술을 적용한 학과들이 신설되었다. 더욱이 기존의 무용학과들도 예술대학에 편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수무용보다 전공생 수급이 수월한 실용예술로 변경된 학과목을 변경하여 위기를 돌파·모색하고 있다.



순위	상명대학교 키워드	빈도	성신여자대학교 키워드	빈도	서경대학교 키워드	빈도
1	무용	37	무용	16	무용	29
2	예술	24	움직임	11	움직임	27
3	테크닉	23	동작	10	동작	23
4	레파	16	창작	7	공연	22
5	현대	13	신체	5	신체	15
6	창작	12	실기	4	워크샵	10
7	심화	11	댄스	4	창작	10

그림 5. 상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와의 클라우드 결과

〈그림 5〉은 무용학과에서 무용예술학과로 변경한 상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등을 비교한 결과이다. 세 학과 모두 ‘무용’, ‘레파’, ‘움직임’ 등 기존의 무용학과 관련된 단어 빈도가 높았다. 이어 무대예술과 관련된 ‘창작’, ‘공연’, ‘작품’, ‘테크닉’, ‘해설’ 등의 무대 실습과 관련된 단어 크기 역시 컸다. 이는 기존의 무용학 학과명을 고수하고 있는 학과(전공) 즉, 순수예술과 실용예술 사이를 두고 앞으로 무용학의 목표와 방향을 교과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요가’, ‘자격증’, ‘스포츠’ 등 취업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 언급 빈도도 높았다. 이는 학문의 생존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공연예술학과

무용학과의 연이은 폐과로 무용학의 존재위기를 타개하고자 공연예술이 가미된 학과로 정체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무대공연 입문과정에서 발레를 통해 표현 또는 움직임에 익히기에 학문적으로 상호연관성이 보인다.



순위	한국체육대학교 키워드	빈도	인천대학교 키워드	빈도
1	현대	14	무용	12
2	한국	10	연출	11
3	생활	9	연기	10
4	창작	8	작품	7

5	훈련	7	공연	5
6	요가	7	예술	4
7	해설	4	연극	4

그림 6. 한국체육대학교와 인천대학교와의 클라우드 결과

〈그림 6〉은 한국체육대학교와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두 대학 모두 이전에 무용학과 학과명을 사용하다가 최근 공연예술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했다. 클라우드 결과, 학과목에서 서로 공통적인 단어가 ‘공연’ 외에는 없을 정도로 서로 관심사와 연구분야가 다르다. 특히 한국체육대학교는 무용학을 전공한 교수가 아직 존재하나 인천대학교는 무용학을 전공한 전공 교수가 사실상 전무하여 무용학 계열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일부 학과목에서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나 기본 교과과정은 연극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학과명의 변화는 대학 내에서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

4. 무용학부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학부로 편제된 경희대학교 무용학부에 대한 교과과정을 비교·분석했다.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전공에 따라 교과과정을 삼분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발레전공	한국무용전공	한국무용전공			
순위	발레 키워드	빈도	한국무용 키워드	빈도	현대무용 키워드	빈도
1	무용	16	무용	23	무용	21
2	발레	13	실기	21	움직임	16
3	안무	12	창작	20	안무	15
4	예술	8	예술	17	창작	12
5	무대	8	안무	16	체육	10
6	창작	5	테크닉	13	예술	7
7	작품	5	공연	10	작품	7

그림 7. 경희대학교의 클라우드 결과

공통적으로 ‘무용’, ‘예술’, ‘무대’, ‘창작’, ‘작품’, ‘공연’ 등 무용학부 역시 세부 학과목만 다를 뿐, 무용학의 학문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안무’, 실기와 실습 단어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체육’, ‘스포츠’, ‘보건’ 등 교직과 관련된 단어 크기도 컸다. 이는 순수 예술성을 강조하는 무용학이 막상 예술교과가 아닌 체육교과 교원자격증을 교직이수 과정으로 취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무용계열학과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대입 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별된 무용계열학과는 15대학, 17학과를 선정했다. 그리고 학과목 428개를 시각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연구문제 1) 무용계열학과에 따른 교과과정의 주요어는 무엇인가? 2) 무용계열학과에 따른 교과과정에 시각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무용 교육과정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시기장르별에 맞추어 다양하게 개발되고 구성되어 왔다”(김경숙, 박수경, 1997; 박선희, 조남용, 2009; 배귀영, 2003; 서예원, 2003). 과거에는 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대중적인 춤이 문화활동을 통해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이 무용에도 적용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신체 건강 및 아름다움 추구 등의 이유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실용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용무용은 교육적 가치를 통해 전공분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실용무용계열의 학과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과 지식 측면에서 볼 수 있듯이 동작, 신체표현 요소 및 자세등이 무용수에게 필요한 것으로 포함되고 기술(실기) 측면에서는 테크닉, 움직임, 창작, 공연 등이 포함되었다. 유미희(2009:24), 오현주·노현식(2012:181)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무용교육이 여전히 무용예술가, 교육자, 지도자 양성이 동일하며, 기초학문에 머무르는 이론교육이거나 실기교육과 공연위주에 치중하고 사회적 수용에 따른 무용 전문 인력의 원활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학 무용계열학과를 졸업 후 활동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프리랜서, 대학원 진학, 방과후교사 및 학원강사, 안무가, 공연예술가, 잡지기자, 대중무용수, 스포츠강사 전공분야의 무용관련 직업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용과

내에 무용교육의 교육과정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방법이 더욱 체계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용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 또한 대학무용계열학과에서는 전문무용교사가 되기 위해 교과내용지식인 실기와 이론의 지식뿐 아니라 수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용수업 관리 내용지식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여 교과과정 비교 분석한 박채은, 김유경(2019:104)은 “주요교육내용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무용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예술로서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독립교과과정의 학문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독립적인 교과과정을 통하여 무용계열학과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무용교육의 교과과정이 이루어질 길 바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무용계열학과들은 공통적으로 ‘발레’, ‘무용’, ‘신체’, ‘움직임’, ‘레파’ 등 전통적인 무용학의 학문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이론보다는 실기 과목의 단어 언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체육이론 학과명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다. 넷째, 프리랜서 직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학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새로운 학과명으로 신설 또는 변경되는 과정에서 순수예술과 실용예술 간의 경계가 지역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학과명에 적합한 학과목 개설을 통해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이운신·홍성규(2020:766)연구에서는 “교과과정을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통해 무용계열학과의 학과 명칭의 적합성과 정체성을 개설된 학과목으로 단순히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분석한 것이 아닌 시각화로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용학은 발레·한국무용·현대무용 등 대학의 삼분법 전공에 따라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어 학문으로서 발전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연극 같은 경우에는 학문으로서 무용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연극영화가 2015년 교육과정에서 예술교과로 포함이 된 부분은 무용학이 갖지 못한 한계이다. 그러므로 무용학이 음악이나 미술처럼 예술을 연구·교육하는 학문 또는 학과로서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대학 내 교과과정을 비교하거나 사례연구 등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시대에 발맞춰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 활성화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무용학이 기능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 김경숙, 박수경 (1997), “대학 무용(학)과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1**, 5-17.
- 김준환, 문형진, 이항(2021),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한 국내 융복합 학술연구 트렌드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19(2)**, 33-38.
- 김지영, 홍애령 (2019), “무용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탐색: 시계열 관점의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17(9)**, 439-450.
- 문승리, 이원석 (2020),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한 젠트리피케이션 관점 차이 연구: 관광학과 비관광학의 연구 비교를 통해”,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호텔경영학연구 29(4)**, 229-243.
- 민서희(2018), **비전공자를 위한 R 입문서(R로 만드는 워드 클라우드)**, 서울: 행복한마음.
- 박선희, 조남용 (2009), “진로 교육 측면에 살펴본 무용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현황과 대안적 방향 탐색”, 한국무용과학회, **한국무용과학회지 19**, 127-138.
- 박정선(2017), “대학교 무용학과 교과과정 내 다문화 무용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 **무용예술학연구 64(2)**, 1-24.
- 박재은, 김유경 (2019),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식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분석: 제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4)**, 97-113.
- 반재훈, 김동현, 하중수(2018), “R을 이용한 대학의 학과 명칭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2(6)**, 829-834.
- 배귀영(2003), “대학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 과정개발을 위한 연구”, 창원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경남 체육연구 8(2)**, 29-40.
- 서예원(2003), “초등무용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4(1)**, 15-32.
- 신민혜(2016), “진로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한 무용학과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운영방안”, 한국무용예술학회, **무용예술학연구 61(4)**, 13-27.
- _____(2017), “대학 무용학과 의 존립을 위한 선발-교육-진로 방향성 모색”, 한국무용예술학회, **무용예술학연구 63(1)**, 67-85.
- 신주영(2018), “무용전공 체육학 대학원생의 정체성 형성과정”,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18(1)**, 13-23.
- 오현주, 노현식 (2012), “대학에서의 무용교육개선방안 연구”, 한국무용연구학회, **한국무용연구 30(2)**, 175-202.
- 유미희(2009), “한국 무용교육의 변천과 과제: 해방이후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2)**, 1-27.
- 유병채(2019), **체육백서**, 서울: 스포츠정책과학연구원.
- 유봉호(1998), **현대교육과정**, 서울: 교학연구사.
- 이윤신, 홍성규 “중국 4년제 대학교의 전자음악 커리큘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융합학회, **문화와 융합 42(12)**, 751-776.

- (2020), “지역 대학 무용학과의 현황과 전망: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 56, 29-52.
- 이지선(2016), “대학무용교육 현황 및 변화”,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4(3), 99-114.
- 최윤선(2012), “시장중심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 개발 제안”,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1), 254-264.
- 추나영, 장승현 (2021), “무용전공자의 ‘체육학자 되기’ 과정”, 부산대학교교과교육연구소, **과학교육연구** 60(3), 451-462.
- 홍후조(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학년군, 교과군 개념의 교육과정적 의의 분석”, 과학교육연구소, **교육과정연구** 27(4), 47-70.
- Parkhouse, B. L.(1987), “Sport management curricular: Current status and design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2), 93-115.